

#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한 선택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

컴퓨터정보보안전공 202310814 우지연

##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무기수의 가석방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무기형은 범죄자를 평생 감옥에 가두는 형벌로,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법정 최고형이다. 가장 엄격한 형벌인 만큼 흉악 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준 범죄 사례에 대해 선고된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가석방은 무엇일까? 가석방은 범죄자가 정해진 형기를 다 살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감자를 한해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석방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심사를 통해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일반적인 가석방 절차 과정이다. 이처럼 무기수도 가석방 절차 과정을 거쳐 가석방 여부를 정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대적 종신형'만을 채택하고 있다. 즉, 모든 무기수에게는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무기수의 가석방은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논하고자 한다. 그 다음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반론과 그에 대한 재 반론을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 2. 본론

### 2-1.

무기수가 가석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일정 형량 이행과 교도소 내에서의 모범적인 행동, 재범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은 모두 교도소 내부에서 평가되며 이는 모순적이다. 교도소는 수감자를 사회와 격리하고 교정하는 시설이

다. 수감자는 교도관의 감시와 제한을 받으며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일상에 따라 생활한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에서의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보다 규칙적인 행동을 하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사회에서의 적응력이나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석방을 받은 무기징역 수가 재범을 저지른 몇몇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호순이 있다. 강호순은 1988년에 범죄를 저질러서 무기형을 받았다. 이후 2008년에 가석방을 받고 조기 출소하였으나 2009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볼 수 있다. 가석방은 사회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에서의 모습이 예측되지 않는 교도소 내의 모습만으로 가석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 2-2.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절대적 종신형 도입 시에, 범죄 예방 강화와 범죄에 대한 엄격한 경고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흉악범이 사회로 복귀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줄어들며 사회 안전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경고가 될 것이다.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형벌이기에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3. 반론 / 재 반론

### 3-1. 반론

한편, 절대적 종신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기수를 평생 동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이 오히려 범죄 예방에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도시설 내에서 교정과 개선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수감자는 교화할 것이며, 이는 범죄 예방에 더 큰 효과를 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모든 사람이 과거의 행동에 대한 회개와 개선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형벌은 수형자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박탈하며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서는, 사회 복귀의 기회 박탈로 교정 불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 3-2. 재 반론

그러나 무기수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기형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선고된다. 그들을 교도소 내의 교정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적 종신형은 무기수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아예 없앤다. 이는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무기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무기수가 사회로 재복귀 된다는 것은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기수가 사회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상처와 고통을 재차 상기시켜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복귀의 기회 박탈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모든 교도소 내의 수감자들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반성을 하며 교화하여야 한다. 즉, 사회 복귀의 기회 박탈로 인해 교정 불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무기수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며 교정의 진정한 목적에도 어긋난다.

## 4. 결론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흉악

범죄자에 대한 현재 법정 최고형은 무기형이다. 하지만 무기형 조차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어야 하는가?

**이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촉구한다.** 이 형벌은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를 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절대적 종신형 도입으로 인해 강력한 경고로 사회 안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5. 참고문헌

[속보]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 공식화, 뉴시스, 2023-08-04 (수정 : 2023-08-04, 방문일 : 2023-11-28, 웹 주소:

[https://www.newsis.com/view/d=NISX20230804\\_0002402351&cID=10201&pID=10200](https://www.newsis.com/view/d=NISX20230804_0002402351&cID=10201&pID=10200))